

# “노동시장 등 구조개혁 늦을수록 잠재성장 낮아져”

## 인터뷰 | 아구스틴 카르스텐스 BIS 사무총장

“주요 경제 국가들이 진지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구조개혁(Structure reform)이다. 구조개혁을 늦출수록 잠재성장률에 영향을 미친다.”

아구스틴 카르스텐스(Agusitn Cars tens) 국제결제은행(BIS) 사무총장은 20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한국은행(BOK)-BIS 공동컨퍼런스’에서 가진 언론 공동 인터뷰에서 “구조 개혁이란 아시아 태평양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거나 경쟁을 많이 하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 인프라에 투자하고 노동 생산성의 효율이 높아지는 것, 다자간 무역을 진흥하는 것 등을 말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카르스텐스 사무총장은 내년 세계경제에 대해 국제통화기금(IMF) 전망과 의견을 같이 했다. IMF는 지난 9월 올해 세계경제전망을 기존 3.9%에서 3.7%로 하향한 바 있다. 내년 전망도 3.7%로 낮

태평양 시장서 경쟁환경 만들어야 인프라 투자해 다자간 무역이 ‘답’

찾았다. 글로벌 경제에 가장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는 미·중 무역분쟁을 꼽았다. 카르스텐스 사무총장은 “무역분쟁은 세계 경제 불확실성 높이고 투자 및 소비 둔화, 가치 체계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작·간접적인 영향을 준다”며 “무역분쟁은 투자 둔화, 소비 변화로 글로벌 밸류 체인을 변화시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달 말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회담에서의 미·중 간 협상을 기대했다. 카르스텐스 사무총장은 “과거 멕시코와 트럼프 간 협상 전례에서 보듯 미·중도 대화로 해결하길 바란다”면서 “미·중간 무역분쟁 시 세계경제 불확실성과 성



아구스틴 카르스텐스 BIS 사무총장이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면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을 저해하는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분명한 밑그림을 갖고 대화를 나누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준의 금리인상과 관련해서는 “미 금리인상은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대

체적으로 잘 대응해 왔다”며 “10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으면서 그동안 중앙은행들이 비전통적인 방법을 써왔고 연방준비제도는 이를 되돌리는 시점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역시 거시경제가 견조하고 인플레이션을 잘 조절하고 있고 금융시장은 안정돼 있다”며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지만 적절한 통화정책 등으로 잘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카르스텐스 사무총장은 최근 이주열 한은 총재가 BIS 이사회 멤버에 들어온 데 대해 “지금까지 아시아 국가는 중국, 일본, 인도였는데 여기에 한국이 들어오면서 BIS 최고 의사결정 기구에서 아시아의 무게가 높아졌다”며 “한국과 BIS가 오래도록 관계를 이어가 한국이 국제금융시장에서 많은 기여를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BIS 이사회는 신임 이사에 이주열 한은 총재를 선임했다. 한은 총재가 BIS 이사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희주기자 hj89@metroseoul.co.kr

## 제주항공, 5조원 규모 ‘737MAX’ 50대 도입

단일기종 최대규모 확정구매 40대 2022년부터 인도... 新노선 발굴



제주항공 737 MAX 항공기.

제주항공이 미국 보잉사가 제작한 737 MAX 기종 항공기 50대를 도입하고 신규 노선 확대의 발판을 마련한다.

제주항공은 보잉사의 최신기종인 737 MAX 50대를 오는 2022년부터 인도 받는 내용으로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20일 공시했다. 확정구매 40대와 옵션구매 10대 구매 계약으로, 투자하는 금액은 공시 가격(카탈로그 가격)을 기준 약 44억달러(약 5조원) 규모다.

이번에 제주항공이 계약한 50대의 물량 중 확정구매 40대는 단일기종을 기준으로 한국 국적사가 체결한 항공기 계약 중 최대규모라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신규 항공기 세 부 도입 계획은 내년 초 중장기 전략 발표에서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항공은 이번 항공기 도입계약을 통해 현재 보유하고 있는 B737-800NG를 차세대 기종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제주항공은 운용리스를 통한 항공

기 운용방식을 직접 보유로 바꿈으로써 임차료를 줄이고, 연료 효율을 개선한 차세대 친환경 항공기 운용을 통해 연료비와 정비비 등의 비용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737MAX는 보잉이 개발한 차세대 주력기로 기존에 운용 중이던 B737-800NG에 비해 운항거리가 길어지고, 연료효율은 14% 높다. 새로 도입되는 737MAX 8은 189명이 탑승할 수 있으며 최대 운항거리가 6500km로 현재 운용중인 B737-800NG에 비해 1000km 이상 더 멀리 갈 수 있어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 등 새로운 노선 확대도 가능하다.

아울러 제주항공은 이번 계약에 일정 물량을 최대 230명이 탑승 가능한 737MAX10으로 전환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

시켰다고 전했다. 운항거리 확대를 통한 새로운 노선 발굴과 함께 편당 탑승인원을 늘림으로써 한정된 자원이 슬롯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을 마련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이번 B737MAX 도입계약은 차세대 항공기로 자연스럽게 기단을 교체하고 이를 통한 원가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대한민국 항공산업을 선도하는 대표적인 국적항공사로 한 단계 성장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제주항공은 운용리스 35대와 올해 구입한 신조기 3대 등 모두 38대의 B737-800 단일기종을 운용하고 있으며, 연내 1대를 더 들여와 모두 39대의 항공기를 보유할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 ys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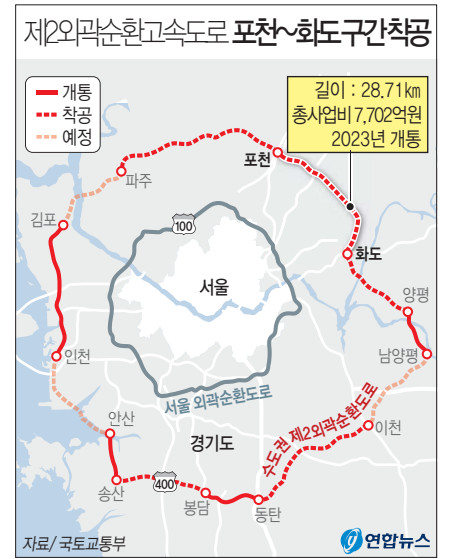
## 제2순환고속도로 포천~화도 내달 첫 삽

포천시 남양주시까지 약 17분 단축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중 경기도 포천시~경기도 남양주시를 잇는 포천~화도 고속도로의 실시계획을 19일 승인했다. 이 구간은 연장 28.71km로 총 사업비 7702억원을 투입해 올해 12월 중 착공, 오는 2023년 개통이 목표다.

포천~화도 고속도로는 건설 중인 파주~포천(2023년 개통예정) 및 화도~양평(2020년 개통예정) 노선과 연계해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의 동북부 구간을 완성하게 된다. 이로써 서울외곽순환도로의 교통량을 분산해 수도권 내부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수도권 동북부지역의 고속도로 접근성을 높여 교통 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도로를 이용해 포천시에서 남양주시까지 이동하면 기존도로에 비해 통행 거리는 약 21km, 통행 시간은 약 17분 정도 단축된다. 포천~화도고속도로는 수도권 동북부구간 고속도로와 연결하는 2개의 분기점(JCT)을 설치해 도로 이용자의 수도권 접근이 쉬워질 전망이다. 또 포천



시 내촌면을 직접 연결하는 내촌 나들목 등 5개의 나들목(IC)을 설치해 지역 주민이 고속도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포천~화도고속도로는 포스코건설 등 12개사로 구성된 수도권 외곽순환고속도로(주)에서 시행하는 민간투자사업으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를 거쳐 올해 5월 25일 실시협약이 체결됐다. /채신화 기자

## HUG, 미분양관리지역 지원 ‘주택업계 CEO 간담회’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0일 경남 교원단체 총연합회 빌딩에서 ‘미분양관리지역 지원을 위한 주택업계 CEO(최고경영자) 전국순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미분양주택 증가에 따른 주택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으며, 경남지역에서 주택사업을 하는 9개 주택업체 CEO와 경남도청 고위관계자가 참여했다.

HUG는 미분양지역에서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미분양관리지역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HUG 지원 사항을 소개했다.

HUG는 ‘후분양대출보증’과 ‘모기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20일 경남 교원단체 총연합회 빌딩에서 ‘미분양관리지역 지원을 위한 주택업계 CEO 전국순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HUG 이재광 사장이 발언하고 있다. /HUG

보증’을 통해 미분양지역에서 주택사업을 하는 사업자의 자금난 해소를 지원하고 있다. 또 미분양지역의 임차인이 전세 만료 6개월 전에도 보증신청이 가능하도

록 하고, HUG가 임대인 대신 반환한 전세보증금 회수를 6개월간 유예해주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특례제도를 이달 초 도입했다. /채신화 기자 csh9101@

## 지난달 주택거래량 전년 대비 46% 증가

9·13 부동산 대책을 앞두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매매가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주택 매매거래량은 총 9만 2566건(신고일 기준)으로 작년 동월 대비 46.4%, 전월 대비 21.6% 각각 증가했다.

주택 매매거래에 따른 실거래가 신고 기간은 계약 후 60일 이내로, 10월 거래량 통계에 9·13대책 발표 직전인 8~9월 초 거래량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지난달 수도권의 주택 거래량은 총 5만 4823건으로 작년 동월 대비 74.1%, 전월 대비 11.4% 각각 증가했다.

특히 서울의 거래량은 총 1만8787건으로 지난해 10월(8561건) 거래량보다 119.4% 급증했다. 지난해 8·2부동산대책 발표 직후 주택거래가 위축되며 작년 10

월 거래량이 급감한 데 따른 기저효과로 분석된다. 그러나 지난달 9·13대책 발표 이후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서울 지역의 주택거래가 위축되면서 9월 신고분(1만 9228건)에 비해서는 2.3% 줄어 들었다.

지방의 주택 거래량은 3만7743건으로 작년 동월 대비 19%, 전월 대비 40.2% 각각 증가했다.유형별로는 전국의 아파트 거래량이 총 6만4559건으로 작년 동월 대비 61.1%, 연립·다세대는 1만6715건으로 29%, 단독·다가구는 1만1292건으로 11% 각각 늘었다.

가을 이사철 등의 이유로 전월세 거래량도 많아졌다. 전월세 거래량은 계약 후 곧바로 확정일자를 비롯한 거래 신고가 이뤄져 계약부터 신고일까지 시차가 거의 없다. /채신화 기자